

『捷解新語』의 大字表示 分析

趙南德*

目次

1. 머리말
 2. 表示의 規則性
 3. 大字「七」表示
 4. 大字「十」表示
 5. 複合字表示
 6. 結語
-

1. 머리말

『捷解新語』를 音韻과 語彙 등의 어학연구를 위한 文獻으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 기본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본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捷解新語』의 성격은, 1720年(朝鮮朝 肅宗四十六年庚子) 漢學教授 金慶門의 序를 갖고 있는 『通文館志』 卷八「書籍」의 기술 「內賜老乞大諺解 二本…(中略)…○以上漢學書 蒙語老乞大 八本…(中略)…○以上蒙學書 捷解新語 十本二件○以上倭學書 小兒論八歲兒 各一本…(中略)…○以上淸學書」를 참고로 해서 말하면, 司譯院의 漢學·蒙學·倭學·淸學의 四學을 행하기 위한 書籍 중에 하나인 「倭學書」가 되는 것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본고¹⁾는 『捷解新語』가 가지고 있는 「倭學書」라고 하는 본디의 성격

*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교수 일본어학

1) 본고는 2003년도 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捷解新語』의 構造 考察)를 행한 내용 중,

에 대한 이해의 일환으로써 본서의 일차적인 소용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司譯院의 「倭學」이 행하여진 현장에서 본서를 어떠한 식으로 썼는가, 그 실제 쓰는 방법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捷解新語』는 어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日本의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0)의 『重刊改修 捷解新語』가 아닌,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重刊捷解新語』(1781年 刊行)인데, 여기에서는 원래 版에는 없는 내용을 별도로 註와도 같이 써놓은 것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²⁾ 『重刊捷解新語』의 全 十卷 12冊 가운데에서 第十卷의 下編 1冊을 제외한 나머지 11冊만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註와도 같은 것은 이 11冊의 전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하나같이 主客과 節目의 구분이 행하여져 있는 邊欄의 上部에 자리 잡고 있다. 이 邊欄上部에 별도로 써놓은 것들은 「倭學」의 현장에서 본서를 쓸 때의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倭學書 『捷解新語』의 실제 쓰는 방법의 일단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表示의 規則性

邊欄上部에 별도로 써놓은 것들은 조사의 편의상 各張의 순서를 나타내는 張次表示와 「八卷二十三丈」과 같은 卷丈表示, 그리고 「五」·「三」과 같은 張次外數字表示의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張次表示와 卷丈表示, 그리고 張次外數字表示에서의 大字「五」表示까지는 이미 拙稿³⁾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정리를 행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리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을 보충한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내용 전개는 이미 발표된 拙稿 「倭學方式에 대한 考察(一)」(2003, 『日本語學研究』 第7輯, 韓國日本語學會)의 내용 일부를 이어서 행하고 있다.

2) 본서에 대하여서는 安田章(1990) 『外國資料と中世國語』 所載 「捷解新語の改修本」에 간단한 언급이 행하여져 있다.

3) 張次表示와 卷丈表示에 대하여서는 「『捷解新語』의 冠註에 대한 考察(一)」(1999, 『논문집』 제 23집,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정리를 행하여 보았으며, 張次外數字表示에서의 大字「五」表示까지에 대하여서는 「倭學方式에 대한 考察(一)」(2003)에서 정리를 행하여 보았다.

결과의 하나로서 卷丈表示의 경우, 그것이 行을 단위로 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特定の 行中内容, 구체적으로는 表示卷丈의 該當 行間의 大白圓圈單位 行中内容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大白圓圈單位 行中内容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여 두기로 하면, 卷丈表示의 대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特定 行中内容의 構成을 第九卷까지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特定 行中内容의 「伊呂波」部分의 끝 쪽에 모두 大白圓圈(「○」)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⁴⁾. 이 大白圓圈은 第十卷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서는 特定 行中内容의 「伊呂波」部分의 끝 쪽에 「彼書字樣」과 「我語釋解」가 실려 있는데, 『捷解新語』를 볼 때에 이 行中内容의 構成에서의 大白圓圈 또는 「彼書字樣」과 「我語釋解」가 실려 있는 곳은 거기에서 한 단위의 行中内容(「伊呂波」部分)이 끝난다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大白圓圈 혹은 「彼書字樣」·「我語釋解」에 의한 行中内容의 한 매듭을 第九卷까지의 경우에서의 特定 行中内容의 構成 特徵을 빌려서 大白圓圈單位 行中内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大白圓圈單位 行中内容을 卷丈表示의 경우에 이어서 張次外數字表示에서의 大字「五」表示의 경우에서도 거듭 중시할 수가 있게 되었다.

張次外數字表示는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小字表示의 경우와 大字表示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여 볼 수가 있는데, 大字表示의 경우는 小字表示의 경우에 비하여 「五」·「七」·「十」 또는 「十五」와 세로로 쓰여진 「七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大字表示의 경우는 이해의 편의 상 출현수가 둘 이하인 것은 特別例로, 그 이외의 것은 一般例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一般例는 다시 그 구성에 따라서 單字의 경우와 複合字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複合字의 경우는 「七五」(세로로 쓰여진 것), 「十五」등의 二字構成의 것과 「十七五」(세로로 쓰여진 것), 「十五七」등의 三字構成의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大字表示의 경우에 대한 정리를 행하고, 이 정리를 기본 자료로 하여서 大字表示行의 狀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表 1>과 같이 된다.

4) 단, 이 大白圓圈이 特定 行中内容이 主客單位 行中内容의 끝부분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생략되어져 있다.

<表 1> 大字表示行의 狀況

표시	시작행	비시작행	표시	시작행	비시작행	표시	시작행	비시작행
五	42	2	十五、	4	0	七五 ◇、	1	0
五、	17	1	十七	16	0	七五	2	0
七	34	0	五七	7	0	五七	1	0
十一	23	0	十七五	27	0	五◇ 七七	1	0
十二	6	0	十七五、	6	0	五、 十	1	0
七五	22	0	十五七	20	0	七十	1	0
七五、	11	0	十七五	4	0	七五 十	1	0
十五	8	0	七五 ●	1	0	七十 五	1	0
비고	시작행 경우의 총합: 257 / 비시작행 경우의 총합: 3							

大字表示行의 狀況에 대한 조사에서의 핵심은 大字表示가 행하여져 있는 行의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데, 行의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行을 「始作行」으로, 그리고 行의 첫머리가 大白圓圈單

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行을 「非始作行」으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大字表示의 경우의 各 表示에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規則性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로써 大字表示의 경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분석의 초점은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大字「七」表示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을 大字表示의 경우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로 삼아서, 먼저 大字表示의 경우 중에서 「五」表示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재음미하며 살펴보아, 그 결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大字「五」表示에서의 表示의 規則性은 表示行에서부터 세어서 오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行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大字「五」表示의 「五」라는 것은 다른 아닌 行數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表示行에서부터 오행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大字「五」表示가 뜻하는 바를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결국 오행으로써의 묶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大字「五」表示에 그 일행째(表示行)에서부터 오행째까지의 범위가 主客單位 두 개에 걸쳐져 있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오행 묶음에 그것을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原則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여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大字「五」表示에서의 파악이 大字表示의 경우의 다른 表示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어서 大字「七」表示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보기로 하겠다.

분석을 위해서 大字「七」表示의 行中狀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表 2>와 같이 된다.

<表 2> 大字「七」表示의 行中狀況

표시행	일행째 상황		칠행째 상황		표시행	일행째 상황		칠행째 상황	
	시작행	비시작행	유종행	무종행		시작행	비시작행	유종행	무종행
[일 3뒤3]	○主		主		[육22뒤2]	○客		客	
[일16앞1]	○客		客		[칠 8뒤3]	○客		客	
[일17앞3]	○客		○客		[칠18앞3]	主		客	
[일24앞3]	○主		主		[칠21앞1]	主		○主	
[일30앞1]	○主		○主		[팔 1앞2]	○客		客	
[이 5앞2]	○客		○客		[팔26앞4]	○主		○主	
[삼 3앞2]	○主		主		[구 3앞2]	○客		○客	
[삼 4앞2]	○客		客		[구 9뒤4]	○客		○客	
[삼 5앞3]	○主		主		[상11앞2]	客		○客	
[삼11앞3]	客		客		[상12앞2]	客		客	
[사 3앞3]	○主		主		[중 1앞4]	客		客	
[사14앞4]	○客		客		[중 2뒤1]	客		主	
[사16뒤2]	主		主		[중 6뒤3]	客		客	
[사23뒤3]	○客		客		[중11뒤3]	客		客	
[오14뒤3]	○主		主		[중12앞4]	客		客	
[육 7뒤4]	客		客		[중14앞1]	主		主	
[육19뒤2]	○客		○客		[중21뒤1]	客		客	

<表 2>의 大字「七」表示의 行中狀況은 大字「五」表示에서의 방법에 따라서 「始作行」과 「非始作行」, 즉 行의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行과 그렇지 않은 行, 그리고 「有終行」과 「無終行」, 즉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行과 존재하고 있지 않는 行을 각각 조사하고,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원(○)으로써 구분하면서, 일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칠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정리를 행한 것이다.

大字「七」表示의 수는 전부 34개가 되는데, 이 大字「七」表示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大字「七」의 表示行에서부터 세어서 칠행째에 해당되는 곳의 狀況을 이해하는 일이 되겠다. 즉, 여기에서도 大字「五」表示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行이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의 관점에서 大字「七」表示行에서 칠행째 쪽의 狀況을 보아,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되겠는데, 大字「七」表示의 칠행째 狀況을 살펴보면,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 「無終行」인 것은 하나도 없고, 34개가 전부 「有終行」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부 「有終行」으로서 나타나는 칠행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면, 여기의 大字「七」表示에서도 大字「五」表示에서와 같은 식으로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은 表示行에서 칠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字「七」表示의 「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行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七」은 表示行에서부터 칠행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大字「七」表示는 칠행 묶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表 2>의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表示行에서 칠행째의 主客單位 行中內容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면, [칠18앞3]의 경우는 칠행째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客」)의 시작 부분([칠19앞1]さくしつ御(オ)しろにおいて○)으로 되어 있고, [중 2뒤1]의 경우는 칠행째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主 答」)의 시작 부분에서 다섯 번째 행([중 3 앞3]てよ里お놀아춤부터)야と乃御(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2개의 경우의 칠행 묶음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主客單位 行中內容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의 경우의 칠행 묶음은 모두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일행째 상황과 칠행째 상황을 보면, 34개 중에서 일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20개가 되고, 칠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9개가 된다. 그리고 이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主客單位 行中內容을 보게 되면, 칠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7례가 된다.

4. 大字「十」表示

이어서 大字「十」表示의 行中狀況을 역시 大字「五」表示에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表 3>과 같이 된다.

<表 3> 大字「十」表示의 行中狀況

표시행	일행째 상황		십행째 상황		표시행	일행째 상황		십행째 상황	
	시작행	비시작행	유종행	무종행		시작행	비시작행	유종행	무종행
[일 2뒤1]1	○客		○客		[오16뒤1]1	○主		客	
[일 6뒤2]2	主		主		[오20앞2]1	○客		○客	
[일15앞3]1	○主		客		[육 2뒤2]1	○主		主	
[이 2뒤1]1	○客		○客		[육 9앞4]1	主		主	
[이10뒤4]1	○客		客		[육10뒤1]1	主		主	
[이12앞2]1	客		客		[육13앞2]1	客		主	
[이17앞2]2	○主		客		[육20뒤1]1	○主		主	
[삼10뒤1]1	○客		客		[육20뒤3]1	主		主	
[사18앞4]2	○客		客		[육23앞2]1	客		客	
[사19앞2]2	客		客		[육29뒤2]1	○主		主	
[사26앞4]2	主		主		[칠19앞2]1	客		客	
[사28앞2]1	客		○客		[팔 4뒤1]2	主		主	
[사34앞4]1	客		○主		[팔22앞4]1	○客		客	
[오 3뒤3]1	客		客		[팔24앞2]1	○主		主	
[오13뒤3]1	客		主						

大字「十」表示의 수는 전부해서 29개가 되는데, 이大字「十」表示에 대한 분석에서도 大字「五」表示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行이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의 관점에서 大字「十」表示行에서 십행째 쪽의 狀況을 보아,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핵심이 되겠다.

大字「十」表示의 십행째 狀況을 「有終行」인 것과 「無終行」인 것으로 각각 그 상태를 구분하여서 살펴보면,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상태가 「無終行」인 것은 하나도 없고, 29개가 전부 「有終行」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9개가 전부 「有終行」인 것의 상태로서 나타나는 십행째 狀況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면, 여기의 大字「十」表示에서도 大字「五」表示에서와 같은 식으로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은 表示行에서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字「十」表示의 「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行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十」은 表示行에서부터 십행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大字「十」表示는 십행 묶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小字表示의 경우에서의 「十」表示 중 [일21앞4]와 [이13앞2]의 것 2개는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邊欄에 밀접하여 있지 않은 점 때문에 다른 小字表示의 경우인 「一」·「三」·「十」表示와 구분지어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⁵⁾, 이 2개의 경우에서 위의 십행 묶음 상황이 확인되므로 이것은 大字「十」表示와 같은 부류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大字「十」表示의 行中狀況의 조사는, 글씨체의 차이에 의한 구분인 보통의 것 「1」의 23개([일 2뒤1]의 것 등)와 필치가 다른 것 「2」(두번째 획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의 6개([일 6뒤2]의 것 등)를 아울러서 행하였는데, 大字「十」表示를 십행 묶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파악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 「1」과 「2」 두 개의 차이에 대하여 어떠한 특기의 내용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들은 같은 것으로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表 3>의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表示行에서 십행제의 主客單位 行中內容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15앞3]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客」)의 시작 부분에서 네 번째 행([일 16앞4]/「まつきました○おくれたふ」)으로 되어 있고, [이17앞2]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客」)의 시작 부분에서 두 번째 행([이18앞3]/「せんきのあることゆゑ○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34앞4]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主」/第四卷의 마지막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 부분에서 일곱 번째 행([사35뒤1]/「のみ申(モウシ)まする」/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행)으로 되어 있고, [오13뒤3]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客」/6行構成의 主客單位 行中內容) 다음의 主客單位 行中內容(「主」)의 시작 부분에서 두 번째 행([오14뒤4]/「かに御(オ)たちなされて○ふさん」)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오16뒤1]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客」)의 시작 부분에서 여섯 번째 행([오 17뒤 2]/「ゆうなから○おかに御(オ)あか」)으로 되어 있고, [육13앞2]의 경우는 십행제가 다음 主客單位 行中內容(「主」)의 시작 행([육14앞3]/「主 離馬嶋向江戸 こもとしやうせんわ○こん」)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6개의 경우의 십행 묶음은 그 범위가 主客單位 두 개 또는 세 개에 걸쳐져 있다. 그러나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의 경우의 십행 묶음은 모두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참고 「倭學方式에 대한 考察(一)」(2003) 참조.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일행째 상황과 십행째 상황을 보면, 29개 중에서 일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4개가 되고, 십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5개가 된다. 그리고 이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主客單位 行中內容을 보게 되면, 십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3례가 된다.

이상과 같이 大字「七」表示와 大字「十」表示에서도 大字「五」表示에서와 같은 식으로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이 表示行에서 칠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 表示行에서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을 각각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大字「七」表示와 大字「十」表示도 大字「五」表示의 오행 묶음에 이어서 각각을 칠행 묶음과 십행 묶음이라고 하는 행 묶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파악함으로써 2자구성 또는 3자구성으로 나타나는 「七五」表示·「十五七」表示 등의 複合字表示도 모두 행 묶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여지게 되었다.

5. 複合字表示

「五」表示·「七」表示·「十」表示의 單字表示에 이어서 複合字表示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보기로 하겠다.

複合字表示는 單字 「五」·「七」·「十」을 기본요소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七五」등의 二字構成의 것과 「十七五」등의 三字構成의 것이 있는데, 複合字表示가 뜻하는 바에 대하여 單字 「五」·「七」·「十」을 구성의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생각하여 보면, 이것 역시 單字表示와 마찬가지로 행 묶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다.

複合字表示의 예로서 大字「七五」表示에서 [일 7앞3]의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일 7앞3] 주변의 各行狀況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 7앞3] 주변의 各行狀況>

대자 표시 의 경우	행	행중내용	시 작 행	대백원 권단위 행중내 용 의 끝부분	비고
	[일 7앞1]	노뿌도우호우노아라와레누 のふてうはうのあらわれぬ 의성 소 가나타나지아닐	×	×	
	[일 7앞2]	요우니오 다노미무시 마쓰루 やうに御(オ) たのみ申(モウシ) まする○ 양 으로 미 던습 닌	×	○	
七 五	[일 7앞3]	마고도니 곤 니지와 하시 まことにこんにちわ○はし 진 실노 今日 은 처업	○	○	표시행 (일행 째)
	[일 7앞4]	메테오 메니가가리마시따도고 めて御(オ) めにかかりましたとこ 으로 뵈 읍 닌딕	×	×	이행째
	[일 7뒤1]	로니오 곤 이니아마에마시떼 ろに御(ゴ) こんいにあまゑまして 극진히심을미 더	×	×	삼행째
	[일 7뒤2]	왕가마마나고도오히가예 ○わかままなことおひかゑ 내 싱각흔일 을멈치지	○	○	사행째
	[일 7뒤3]	나시니 가요우니무시 마쓰호 なしに○かやうに申(モウシ) ますほ 아니코 이 리슬 오	×	○	오행째
	[일 7뒤4]	도니 나니호도뿌도우호우 とに○なにほとふてうはう 니 언 며 無調 法	×	○	육행째
	[일 8앞1]	또오모와 싸 료우또모 유루 とおもわしやれうとも○ゆる 이너 기 실 여 니와 샤	×	○	칠행째
	[일 8앞2]	산 샤 레이 さつしやれい 히 읍 소	×	○	팔행째

五、	[일 8앞3]	소례호도니오오구라마씨우 客 それほどにおおくらましう 그대도 록거 르기	○	×	(오행 묶음 표시)
	[일 8앞4]	오오세라레스또모 소고모도 おおせられすとも○そこもと 니 르지 아니셔도 자 너	×	○	

위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일 7앞3]에 複合字表示인 大字「七五」表示가 있으며, 이 [일 7앞3] 주변의 各行을 單字表示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行이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大字「七五」表示行에서부터 세어서 칠행째 쪽([일 8앞1])과 오행째 쪽([일 7뒤3])의 狀況이 「有終行」인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狀況을 複合字表示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表 4>와 같이 된다.

<表 4> 複合字表示의 行中狀況

복합 자표 시	표시행	일행째 상황		오행째 상황		칠행째 상황		십행째 상황		주객단위 행중 내용과의 관계		비고
		시작행	비시작행	유종행	무종행	유종행	무종행	유종행	무종행	주객단위한개	주객단위두개	
七五	[일 7앞3]	主		主		主				五七		2 자 구 성
	[일22앞1]、	○主		主		主				五七		
	[일28뒤4]	○客		客		客				五七		
	[이 1뒤1]、	○主		主		主				五七		
	[이 6앞1]、	○主		主		主				五七		
	[이 9앞1]	○客		客		○客				五七		
	[이13뒤1]、	○主		主		○主				五七		
	[이20뒤2]	○客		客		客				五七		
	[이24뒤3]	○客		客		客				五七		
	[이25뒤4]	○主		主		○主				五七		
	[삼 2앞2]、	○客		客		客				五七		
	[삼14뒤1]	○客		客		○客				五七		
	[삼17앞1]	○客		客		○客				五七		
	[삼19앞1]	○客		客		客				五七		
	[삼21뒤1]	○主		主		主				五七		
[삼22뒤1]	○客		客		客				五七			

	[삼26앞2]	○主		主		○主			五七	
	[삼30앞2]	○主		主		主			五七	
	[사10앞4]	○客		客		○客			五七	
	[사15뒤3]、	○主		主		主			五七	
	[사34뒤3]	○主		主		○主			五七	
	[오 3앞2]	○客		客		客			五七	
	[오 9뒤1]、	○客		客		○客			五七	
	[오10앞4]	○主		主		主			五七	
	[육 6앞3]、	○主		主		主			五七	
	[육10앞1]	主		主		主			五七	
	[육12뒤1]、	○客		客		客			五七	
	[칠 1앞2]、	○客		客		客			五七	
	[칠 3앞3]	主		主		主			五七	
	[칠10뒤2]、	○客		客		客			五七	
	[칠14뒤3]	主		主		主			五七	
	[칠19앞1]	○客		客		客			五七	
	[구18앞1]	日		日		日			五七	
十五	[일 1앞2]	○主		主			主		五十	
	[일21앞4]、	○客		○客			主		五	十
	[이15앞4]、	○客		客			客		五	十
	[삼23뒤4]	○客		客			○客		五十	
	[사22앞2]	主		主			主		五十	
	[오14앞1]、	○客		客			主		五	十
	[오17앞1]	○客		客			○客		五十	
	[육 9앞1]	○主			主			主		五十
	[육15앞3]、	○客		客				客		五十
	[칠 2앞3]	○主		主				主		五十
	[칠14앞4]	○主		主				主		五十
	[구13뒤2]	日		日				日		五十
十七	[일10앞1]	○客				客		○客	七十	
	[삼15앞4]	○主				主		主	七十	
	[삼31뒤1]	○主				主		主	七十	
	[사 4앞3]	主				主		○主	七十	
	[오 7뒤4]	主				主		主	七十	
	[육23뒤1]	客				客		客	七十	
	[육27앞1]	○客				客		客	七十	
	[칠 3앞1]	主				主		主	七十	
	[칠 7앞1]	客				客		主	七	十
	[팔 1뒤2]	客				客		客	七十	
	[팔15앞3]	主				主		主	七十	
	[팔24앞4]	主				主		○主	七十	
	[구 5뒤3]	○客				客		○客	七十	
	[구 6앞3]	客				客		客	七十	

	[구 8뒤1]	主			主		主	七十	
	[중 3앞2]	主			主		○主	七十	
五 七	[상 1뒤3]	主		主	主			五七	
	[상 6앞2]	○客		客	客			五七	
	[상 7앞3]	○主		主	主			五七	
	[중 4앞4]	○主		主	主			五七	
	[중 6뒤1]	○客		客	客			五七	
	[중 7뒤3]	○主		主	主			五七	
	[중 8뒤2]	主		主	主			五七	
十 七 五	[삼13앞2]、	○主		主	主		主	五七十	
	[삼27뒤2]	○主		主	主		○主	五七十	
	[삼28뒤4]	○客		客	客		○客	五七十	
	[삼32앞1]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 8앞1]、	○客		客	客		客	五七十	
	[사20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22뒤1]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23뒤4]	客		客	客		客	五七十	
	[사25뒤1]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29앞4]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30앞4]	主		主	主		主	五七十	
	[사33뒤1]	○客		客	客		○客	五七十	
	[육24앞1]	客		客	客		客	五七十	
	[육25뒤2]、	○主		主	主		主	五七十	
	[칠 4뒤2]、	○客		客	客		客	五七十	
	[칠 6앞3]、	○客		客	客		客	五七十	
	[칠13앞2]、	○客		客	客		○客	五七十	
	[팔 9뒤3]	主		主		○主	客	五七十	十
	[팔14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구 1뒤4]	○主		主		主	○主	五七十	
	[구 4앞1]	○主		主		主	主	五七十	
	[구11앞1]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2앞4]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3앞3]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4앞4]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4뒤2]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5뒤2]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6앞1]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6뒤4]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7앞4]	日		日		日	日	五七十		
[구17뒤1]	日		日		日	日	五七十		
[상 3뒤1]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 1앞2]	○客		客		客	客	五七十		
十	[구10뒤3]	○日		日		日	日	五七十	

3
자
구
성

五 七	[상 1앞2]	○主		主		主		主		五七十	
	[상 2뒤3]	○客		客		客		客		五七十	
	[상 4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상 8앞3]	○客		客		客		主		五七	十
	[상 9앞4]	○主		主		主			客	五七	十
	[상10뒤1]	○客		客			客	客		五七十	
	[상12앞1]	○客		客		客		客		五七十	
	[상13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중 2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중10앞1]	○主		主		主		主		五七十	
	[중11뒤1]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12뒤1]	客		客		客		主		五七	十
	[중13뒤2]	○主		主		主		主		五七十	
	[중15앞1]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15앞3]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15뒤3]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17앞3]	客		客		客		客		五七十	
	[중18뒤3]	○主		主		主		主		五七十	
[중21앞3]	○客		客		客		客		五七十		
十 七五	[팔 3뒤4]	○主		主		主		主		五七十	
	[팔10뒤2]	○客		客		客		客		五七十	
	[팔12뒤4]	○客		客		客		客		五七十	
	[팔20뒤4]	○主		主		主		主		五七十	
七五 ●	[팔 8뒤2]	○主		主			主		五		
七五 ◇、	[이18앞2]	○客		客			客		五		
七五	[팔17뒤1]	○客		客		客				五七	
	[팔19앞1]	○主		主		主				五七	
五七	[칠18앞2]	主		主		○主				五七	
五 ◇	[사32앞1]	○客		客		○客				五七	
五、 十	[오13앞1]	○客		客				客		五	十
七十	[팔14뒤1]	○主				主		主		七十	
七 五 十	[육 1앞2]	○客		客		客		客		五七十	
七 五	[일12앞1]	○主		主		主		○主		五七	十

특별례

複合字表示의 수는 一般例 125개(二字構成의 것 68개, 三字構成의 것 57개)와 特別例 10개로 모두해서 135개가 되는데, 複合字의 表示行에서부터 세어서 각각의 複合字表示의 구성요소 「五」·「七」·「十」이 가리키는 대로, 오행째와 칠행째, 그리고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의 狀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表 4>의 複合字表示의 行中狀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大字「十五」表示에서 [육 9앞1]의 것, 大字「十五七」表示에서 [상 9앞4]의 것과 [상10뒤1]의 것, 特別例에서 [팔 8뒤2]의 것과 [이18앞2]의 것 5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30개가 모두 「有終行」인 것의 상태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135개 중 130개가 「有終行」인 것의 상태로서 나타나는 오행째와 칠행째, 그리고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의 狀況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면, 複合字表示에서도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가리키는 데인 表示行에서 오행째와 칠행째 또는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複合字表示의 구성요소 「五」·「七」·「十」은 각각 다른 아닌 行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각각의 구성요소는 表示行에서부터 각각의 구성요소가 가리키는 데인 오행째와 칠행째 또는 십행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複合字表示도 單字表示와 마찬가지로 오행 묶음·칠행 묶음·십행 묶음의 행 묶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大字「十五」表示에서 [육 9앞1]의 것은 오행째의 상황이, 그리고 大字「十五七」表示에서 [상 9앞4]의 것은 십행째의 상황이, [상10뒤1]의 것은 칠행째의 상황이 각각 「無終行」인 것의 상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3개는 행 묶음 표시에서의 예외가 되겠다.

그리고 特別例에서 [팔 8뒤2]의 것과 [이18앞2]의 것은 모두 칠행째의 상황이 「無終行」인 것의 상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의 複合字表示 「七五」의 「七」에는 「●」([팔 8뒤2]의 것)과 「◇」([이18앞2]의 것)의 표시가 덧붙여져 있으며, 이 2개의 경우는 表示行에서부터 칠행째까지의 범위가 칠행 묶음에 맞지 않으므로 그 행 묶음 표시가 되는 「七」에 대하여 삭제를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2개의 경우는 오행 묶음의 표시(大字「五」表示)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

特別例에서 [사32앞1]의 것인 複合字表示 「五七」의 「五」에도 「◇」와 같은 표시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表示行에서부터 오행째까지의 범위가 오행 묶음에 맞으므로, 여기의 「◇」와 같은 표시는 삭제를 행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大字 「七五」·「十五」·「十七五」表示의 行中狀況의 조사는 大字 「五」表示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五、」表示의 것도 아울러서 행하였는데, 행 묶음의 상황에서 볼 때, 역시 이 각각의 「五、」表示의 것에 어떠한 예외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들을 大字 「七五」·「十五」·「十七五」表示 안에 넣어서 정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複合字表示에서의 행 묶음은 「五」表示·「七」表示·「十」表示의 單字表示에서의 행 묶음과는 다르게, 동일 기점에서의 칠행 묶음과 오행 묶음(大字 「七五」表示의 경우), 동일 기점에서의 십행 묶음과 오행 묶음(大字 「十五」表示의 경우), 동일 기점에서의 십행 묶음과 칠행 묶음(大字 「十七」表示의 경우), 동일 기점에서의 십행 묶음과 칠행 묶음과 오행 묶음(大字 「十七五」表示의 경우), 이렇게 이중 또는 삼중으로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중시하여, 複合字表示에서의 행 묶음은, 그 표시 중에서, 二字構成의 것은 이중의 행 묶음 표시로 이해할 수 있겠고 三字構成의 것은 삼중의 행 묶음 표시로 이해할 수 있겠다.

複合字表示 중에서 三字構成의 것, 즉 삼중의 행 묶음 표시는 오행 묶음·칠행 묶음·십행 묶음의 세 개 행 묶음의 종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되는데, 삼중의 행 묶음 표시인 大字 「十七五」表示(33개)와 大字 「十五七」表示(20개)와 大字 「七五十」表示(1개)의 세 경우는 행 묶음의 종류로 보아서 서로 같은 것으로서 다룰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 「십행 묶음→칠행 묶음→오행 묶음」(大字 「十七五」表示의 경우)과 「십행 묶음→오행 묶음→칠행 묶음」(大字 「十五七」表示의 경우)과 「칠행 묶음→오행 묶음→십행 묶음」(大字 「七五十」表示의 경우), 이와 같이 행 묶음의 순서가 다름을 생각하여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또한 二字構成의 것, 즉 이중의 행 묶음 표시인 大字 「七五」表示(33개)와 大字 「五七」表示(7개), 大字 「十五」表示(12개)와 大字 「五、十」表示(1개), 大字 「十七」表示(16개)와 大字 「七十」表示(1개), 이들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大字 「七十五」表示(1개)의 경우는 「七五」表示의 「七」쪽 오른쪽에 「十」이 약간 흐리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나중에 십행 묶음

을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大字「十七五」表示(33개)와 「七五」表示가 가로로 쓰여 저 나타나고 있는 大字「十七五」表示(4개), 大字「七五」表示(33개)와 가로로 쓰여 진 大字「七五」表示(2개), 大字「五七」表示(7개)와 大字「五◇七」表示(1개)와 가로로 쓰여 진 大字「五七」表示(1개), 이들 경우는 행 묶음의 종류로 보아서도, 행 묶음의 순서로 보아서도, 각각 서로 같은 것으로서 다루어도 무방하다 하겠다.

한편, 삼중의 행 묶음 표시인 大字「十七五」表示와 大字「十五七」表示 그리고 「七五」表示가 가로로 쓰여 저 나타나고 있는 大字「十七五」表示를 보면, 大字「十七五」表示의 경우는 [상 3뒤1]의 것과 [중 1앞2]의 것 2개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삼13앞2]·[삼27뒤2]·[삼28뒤4]의 것 등 31개는 第九卷까지의 경우로 되어 있고, 大字「十五七」表示의 경우는 [구10뒤3]의 것 1개를 제외하고는 그 이외의 [상 1앞2]·[상 2뒤3]·[상 4뒤3]의 것 등 19개는 거꾸로 第十卷의 경우로 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七五」表示가 가로로 쓰여 저 나타나고 있는 大字「十七五」表示의 경우 4개는 모두 第八卷의 경우로 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중의 행 묶음 표시인 大字「七五」表示와 大字「五七」表示를 보면, 大字「七五」表示의 경우는 [일 7앞3]·[일22앞1]·[일28뒤4]의 것 등의 33개 전부가 第九卷까지의 경우로 되어 있고, 大字「五七」表示의 경우는 [상 1뒤3]·[상 6앞2]·[상 7앞3]의 것 등의 7개 전부가 거꾸로 第十卷의 경우로 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렇듯 이들 경우는 행 묶음의 표시가 第九卷까지의 경우와 第十卷의 경우로 크게 편중되어 있다든가, 第八卷의 경우, 第九卷까지의 경우, 第十卷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행 묶음을 행할 때의 상황이 서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表 4>의 複合字表示의 行中狀況 調査 結果에서 세 개 행 묶음의 종류인 오행 묶음·칠행 묶음·십행 묶음의 수를 보면, 예외가 되는 [육 9앞1]의 것(오행 묶음의 예외)·[상 9앞4]의 것(십행 묶음의 예외)·[상10뒤1]의 것(칠행 묶음의 예외) 3개의 경우와 칠행 묶음의 표시에 대하여 삭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팔 8뒤2]의 것·[이18앞2]의 것 2개의 경우의 해당 행 묶음을 제외하고, 오행 묶음은 117개, 칠행 묶음은 119개, 십행 묶음은 88개를 각각 헤아릴 수 있다.

그리고 複合字表示의 行中狀況 調査 結果에서 表示行에서 각각의 구성요소가 가리키는 데인 오행제와 칠행제 또는 십행제의 主客單位 行中內容하

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大字「十五」表示에서 [일21앞4]의 것과 [이15앞4]의 것 등의 아홉 개의 경우의 십행 묶음은 그 범위가 主客單位 두 개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행 묶음하고 主客單位 行中內容하고의 관계를 생각할 때, 「日本各道州郡」이라고 하는 節目單位만으로 구분되어 실려져 있는 경우인 大字「七五」表示에서의 [구18앞1]의 것 등은 별도로 다루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것들은 제외가 되겠는데, [일21앞4]의 것과 [이15앞4]의 것 등의 아홉 개의 경우의 십행 묶음 이외의 경우가 되는 67개([구13뒤2]의 것 등의 12개의 경우는 제외함)의 십행 묶음, 104개([구18앞1]의 것 등의 13개의 경우는 제외함)의 오행 묶음과 107개([구18앞1]의 것 등의 12개의 경우는 제외함)의 칠행 묶음의 경우는 각각 행 묶음이 모두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表示行에서 오행째·칠행째·십행째의 主客單位 行中內容하고의 관계에 대하여 複合字表示에서 확인 한 것과 單字表示에서 확인 한 것을 아울러서 생각하여 보면, 오행 묶음·칠행 묶음·십행 묶음의 세 개 행 묶음의 종류 중, 오행 묶음과 칠행 묶음에서는 행 묶음을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原則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십행 묶음에서는 행 묶음을 행할 때에 이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행 묶음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판단하게 되면, 그 범위가 主客單位 두 개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칠행 묶음(大字「七」表示의 경우)에서의 [칠18앞3]의 것과 [중 2뒤1]의 것, 이 두 경우는 예외가 되겠다.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일행째 상황과 오행째 상황, 칠행째 상황, 십행째 상황을 보면, 일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22개([구18앞1]의 것 등의 13개의 경우는 제외) 중에서 91개가 되고, 오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04개 중 1개, 칠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07개 중 12개, 십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76개 중 14개가 된다. 그리고 行中狀況의 조사 결과에서 主客單位 行中內容을 보게 되면, 오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례, 칠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례, 십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9례가 된다.

6. 끝맺음

이상으로 張次外數字表示를 정리하여서, 그 중에서 大字表示의 경우의 各表示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 張次外數字表示 중에서 大字表示의 경우는 모두 행 묶음의 표시로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

행 묶음의 종류는 오행 묶음·칠행 묶음·십행 묶음의 세 개가 되는 것으로 살필 수 있었는데, 大字「五」表示·「七」表示·「十」表示의 單字表示와 이것을 기본요소로 하여서 구성되어 있는 複合字表示의 各表示行에서 나타나는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성과 이 表示의 規則성의 전제가 되는 各表示行에서 오행째 또는 칠행째 또는 십행째에 해당되는 곳이 「有終行」이어야 할 것은 그대로 각각의 행 묶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각각의 행 묶음의 조건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행 묶음의 조건>

-오행 묶음의 조건-

- 제 1: 일행째는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제 2: 오행째는 거기에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

-칠행 묶음의 조건-

- 제 1: 일행째는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제 2: 칠행째는 거기에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

-십행 묶음의 조건-

- 제 1: 일행째는 첫머리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제 2: 십행째는 거기에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의 끝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

행 묶음은 이중 또는 삼중으로도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위의 각각의 행 묶음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大白圓圈單位 行中內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大字表示의 경우의 各表示에서의 「始作行」에 표시한다고 하는 表示의 規則性은 위와 같은 각각의 행 묶음의 조건 설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字의 各表示에 일행째가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시작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狀況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나, 특히 大字「五」表示의 경우(오행 묶음)와 大字「七」表示의 경우(칠행 묶음)를 통해서, 또한 행 묶음은 하나의 主客單位 行中內容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 묶음은 倭學書 『捷解新語』의 실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 묶음에 관련된 사항의 정리는 기회를 달리하여 행하기로 하겠다.

【参考文献】

- 國立中央圖書館藏 『重刊捷解新語』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0), 『重刊改修 捷解新語』, 일본;京都大學國文學會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72), 『三本對照 捷解新語 本文篇』, 일본;京都大學國文學會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73), 『三本對照 捷解新語 釋文·索引·解題篇』, 일본;京都大學國文學會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87), 『改修捷解新語』, 일본;京都大學國文學會
 安田章(1990), 『外国資料と中世国語』, 일본;三省堂
 趙南德(1999), 「『捷解新語』의 冠註에 대한 考察(一)」, 『논문집』 제23집,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趙南德(2003), 「倭學方式에 대한 考察」, 『日本語學研究』第7輯, 韓國日本語學會

要 旨

『捷解新語』を、音韻、語彙などの語学研究のための文献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るとき、当然ながら、基本的に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本書の持っている性格である。『捷解新語』の性格は、1720年(朝鮮 肅宗四十六年庚子)の漢学教授 金慶門の序を持つ『通文館志』の巻八の「書籍」の記述、「内賜老乞大諺解 二本···(中略)···〇以上漢学書 蒙語老乞大 八本···(中略)···〇以上蒙学書 捷解新語 十本二件〇以上倭学書 小児論八歳児 各一本···(中略)···〇以上清学書」を参考にして言うと、司訳院の、漢学・蒙学・倭学・清学の四学を行うための書籍の中での一つである「倭学書」となるものとして規定することができる。

本稿は、『捷解新語』の持っている「倭学書」という本来の性質についての理解の一環として、司訳院の「倭学」が行われた現場で、この書籍をどのように用いたのか、その実際の用い方の一面を探っ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が、この作業を試みるために本稿で使用している『捷解新語』は、大韓民国のソウルの国立中央図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重刊捷解新語』(1781年刊行)である。ここには、全般の所にもととの版にない別途記したものが少なからず現れているが、これらは、『捷解新語』を用いる際のある状況に関連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ものであり、この別途記されているものが具体的に何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のか、それを調べてみることによって、ある程度は、倭学書『捷解新語』の実際の用い方の一端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ある。

本稿では、別途記されているもののうち、大字「七」表示・大字「十」表示・複合字表示について分析を行い、その結果、これらも行の括りの表示であると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そして、行の括りの種類としては、五行括り・七行括り・十行括りの三つがあるのを見ることができ、行の括りは、白丸単位の行中内容を対象として行っているものである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

行の括りは、実際に『捷解新語』を用いる際の方法の一つになるもの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が、行の括りに関連する事項の整理は、別の機会に譲ることとしたい。

キーワード：大字表示の場合、白丸単位の行中内容、表示の規則性、大字「七」表示、大字「十」表示、複合字表示、行の括りの表示

투 고 : 2006. 5. 31
1차 심사 : 2006. 6. 10
2차 심사 : 2006. 7. 1

住 所 :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電 話 : 02-450-3804
e-mail : ndcho@konkuk.ac.kr